

“3명중 1명 스마트기기 활용 못해”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은 급증했지만 사용자들의 생활은 ‘스마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의 스마트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스마트지수 조사...평균 47.5점
광주·전남북 전국 최하위...활용도 20대 1위
정부차원 스마트 워크·민원 등 이용 높여야

항목별로는 ▲3G 네트워크 접근성(8.4점) ▲WIFI 네트워크 접근성(5점)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8점) ▲애플리케이션 개수(3.6점) ▲애플리케이션 이용시간(6.7점) 등 기기 활용 능력은 50점 만점에 31.7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경제적 활동(1.7점) ▲정치·사회 참여(2.2점) ▲문화 및 정보 획득(3.4점) ▲인맥관리 등 교류(5.6점) ▲LBS(위치기반서비스) 활용(2.9점) 등 서비스 활용 능력을 평가한 부문은 50점 만점에 15.8점으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스마트기기 사용자 3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스마트지수에서 광주·전남북 지역은 45.6점으로 대

구·경북(45.2점)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천·경기(48.7점), 서울(47.9점), 부산·경기(47.7점), 대전·충남북(46.4점) 순으로 지역별 격차를 나타냈다. 광주·전남북 지역의 스마트지수가 낮은 이유는 이 지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치·사회 참여 정도, 즉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사회적현안에 이슈를 제기하는 점수가 전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인 1.2점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9.9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30대(48점), 40대(42.7점), 50대 이상(36.8점) 순으로 조사돼 젊은층일수록 스마트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자가 48점으로 여자(46.4)에 비해 높았고, 대졸 이상이 48.8점으로 고졸(42.5)에 비해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높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직업, 학력, 성별 등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습득 능력의 격차 즉, 스마트 디바이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다바이드(정보격차) 네트워크를 확장해 ‘스마트다바이드’ 해소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스마트워크, 스마트 민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활용도 높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마트지수란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의 스마트화 수준을 수치로 평가한 자료로 스마트기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해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로봇 서바이벌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로봇 서바이벌 경기를 펼치고 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는 오는 21일까지 6일간 열리며 초·중·고생 1565개팀 6000여명의 선수가 로봇댄싱, 로봇축구, 로봇테트리스 등 12개 종목에 도전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통사 오늘 주파수 경매戰

KT-SK 1.8GHz 대역 두고 심리전 치열
동시옴입찰방식 ‘승자의 저주’ 우려도

국내 첫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보통신기술협회 건물에서 진행된다. 하루 안에 입찰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경매 연장전’이 치러진다.

입찰실에는 각사의 대외협력 또는 네트워크 담당 임원으로 선정된 입찰대리인 1명과 실무자 2명이 들어간다. 이들은 허가받은 휴대전화로 라운드별 제한시간 30분 안에 본사의 사결정권자와 입찰가를 얼마로 적어 넣지 논의해야 한다.

800MHz와 1.8GHz 대역을 두고 경쟁할 예정인 KT와 SK텔레콤은 어느 주파수에 얼마나 투자할 방침인지 등 모든 전략을 극비에 부치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사업자가 1.8GHz 대

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GHz 대역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이며 특히 최근에는 통탐에블루션(LTE) 대역의 대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놓고 마지막 최고 입찰가가 낙찰될 때까지 무한대로 올라 낙찰자가 엄청난 자금 부담을 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두 이통사는 행여나 상대 사업자가 주파수 가격을 높게 올려놓고 최종 입찰 라운드에서 빠져나가는 등의 ‘골탕먹이기 작전’을 펼치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이 적정 상한 가격을 책정해 합리적으로 경매에 나선다면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각 라운드에서 최고 입찰가가 얼마였는지를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최고 입찰가에 입찰증분(전 최고 입찰가의 1%)을 더해 다음 라운드 최소 입찰액을 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입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1GHz 대역에 단독 입찰하는 LG유플러스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1라운드에서 이 대역 최저 경쟁가격인 4455억원을 입찰가로 적어 낙찰받고, 퇴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와 KT·SK텔레콤의 대조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치킨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확실한 주파수 배분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LGU+ 플랫폼 ‘게임박스’ 출시

日 GMO사와 제휴

LG유플러스(LGU+)가 일본 인터넷기업인 GMO사와 손잡고 17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게임전문 플랫폼 ‘게임박스(Game BOX)’를 선보인다.

게임박스는 국내·외 대형 게임 개발사의 인기 게임 30여개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 초까지 200개 이상의 최신 게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콘텐츠들을 독점 제공해 경쟁사와의 차별화로 게임 매니아들로부터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LGU+는 단순히 게임만 제공하는 일반 스토어 개념에서 탈피, SNG(Social Network Game) 기능 등을 추가해 고객간 SNS 기능 제공 및 게임 이용자 랭킹, 채팅 등의 공유를 통



한 고객간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게임박스는 GMO 게임센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게임박스 입점 국내 게임 개발사는 해외사업자와 별도의 게임제공 협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본, 미국, 남미, 유럽, 중국 등의 해외사업자에 자동으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면...

내달 24일 DJ센터서 ‘광주 e스포츠 대회’

“2011 광주 e스포츠 대회”(TPGG 2011 : The Playing Gwangju Game 2011)가 다음달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광주 e스포츠대회’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제3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광주지역 예선전’을 겸해 열리며, 본선에 앞서 8월16일부터 27일까지 ▲슬러거(1:1 개인전) ▲피파온라인2(1:1 개인전) ▲아바(3:3 팀전) ▲스페셜포스(5:5 팀전) 등 총 4개 종목 예선을 갖는다.

슬러거는 프로야구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게임으로 야구 규칙을 적용하고 피파온라인2는 축구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게임이다. 아바는 유럽연합과 신 러시아 연방 간의 가상전쟁을 주제로 한 전투게임이고, 스페셜포스는 게임 속의 지형물과 무기를 이용한 특수부대원 간의 서바이벌 게임이다.

종목별 수상자에게는 준 프로젝트이며 자격과 오는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는 부대행사에는 초첨가수 코요테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보드게임 체험관, 서바이벌게임 체험관 등 각종 게임 체험 구역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tpgg.or.kr) 또는 대회 운영사무국(062-382-7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